

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와 미술

‘이달의 책, 이달의 저자’ 7월 후보작

1 한국 산업과 지역의 생존전략 클러스터
 북독규 외 지음/삼성경제연구소/368쪽/값 13,000원
 클러스터 유형별로 해외 성공사례와 국내사례를 분석하여 클러스터의 성공원리를 도출하고 국내 클러스터의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시의성 높은 경제서다.

2 일그러진 근대
 박지향 지음/푸른역사/336쪽/값 13,000원
 역사에 있어서의 상호접촉과 상호작용 그리고 상호변형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 주고 있는 이 책은, 이후 역사학의 향방을 가늠하는 이정표가 될 만하다.

3 책은 나름의 운명을 지닌다
 표정훈 지음/공리/352쪽/값 10,000원
 전망과 성찰을 이끌어낸다는 면에서 교양서이지만, 책의 숲, 디지털 정보의 망망대해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지도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일급의 실용서이다.

4 근대초극론
 히로마쓰 와타루 지음/김향 옮김/민음사/264쪽/값 12,000원
 2차대전 당시 서양의 근대를 초극한다는 명분 아래 전쟁 이데올로기로 변질된 일본 지식인들의 사상을 분석한 책으로 근대에 대한 일본인의 의식을 알 수 있다.

5 한스코는 꼬챙이코
 제임스 크리스 지음/스타시스 에이드리 캐리치우스 그림/이옥용 옮김/마루별/22쪽/값 8,800원
 피노키오처럼 코가 긴 소년을 등장시켜 현실의 세계를 뛰어넘는 환상과 상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이다. 아이들에게 신체를 통한 상상력의 놀이를 깨우쳐줄 만한 책.

6 음악이 흐르는 명화 이야기
 톰 필립스 지음/황혜숙 옮김/예담/268쪽/값 16,500원
 미술 속에 나타난 음악의 의미를 살펴본 흥미로운 책이다. 화가가 그린 음악가의 초상, 그림 속에 등장하는 악기, 음악을 사랑한 화가 이야기 등을 담았다.

7 물의 정거장
 전경린 지음/문학동네/360쪽/값 8,800원
 우리문학의 선명한 이색 전경린의 세 번째 작품집. 상처와 황홀, 결핍과 충만, 권태와 불륜, 영혼과 눈물 등 여전히 매운 욕망과 열정으로 여성의 삶을 관통해 나간다.

8 카뮈를 위한 변명
 박홍규 지음/우물머리있는집/288쪽/값 8,800원
 신화와 전설 속에 가려진 카뮈의 삶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고 있는 책. 자유와 자치 그리고 자연을 존중했던 영원한 반항인 카뮈의 모습이 새롭게 해석된다.

9 텐징 노르가이
 에드 더글러스 지음/강대은·신현승 옮김/시공사/420쪽/값 12,000원
 1953년 5월 20일 뉴질랜드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함께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던 세르프 텐징 노르가이의 비범하지만 평범한 일대기를 좇는 책.



1 2 3
 4 5 6
 7 8 9